Eugene's FICC Update (2022.8.9)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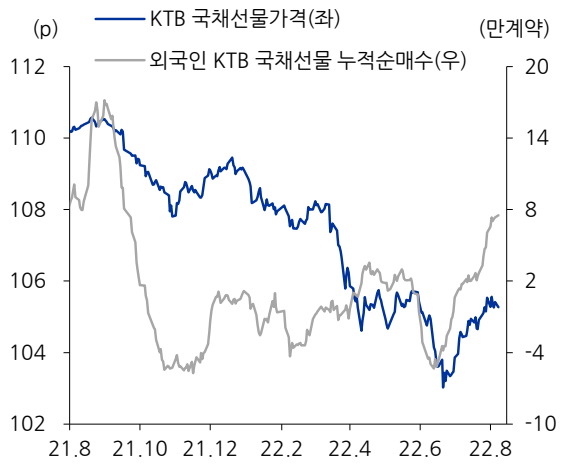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RA 이정훈_ 02)368-6176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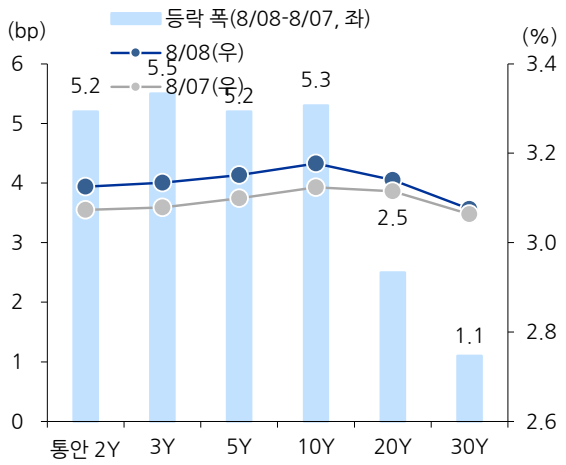
		8/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134%	5.5	5.3	133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177%	5.3	-0.7	92.7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.3	4.5	10.3	45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27	-14.0	-1.0	-384
	10년 국채선물(LKTB)	115.40	-50.0	12.0	-888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201%	-1.2	33.8	247.5
	미국채 10년물	2.756%	-7.6	18.6	124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-44.5	-38.1	-29.3	78.6
	독일국채 10년물	0.894%	-5.7	12.2	107.6
	호주국채 10년물	3.217%	13.2	15.8	154.6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전일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주말 미국 고용 호조로 인한 미국 금리 상승에 연동되며 약세 출발.
- 국고채 3년물 금리 전일비 +10bp 이상 상승하며 출발했으나 외국인이 10년 선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금리 상승폭을 꾸준히 축소하며 마감.
- 국고채 3년물 입찰은 1.7조원 입찰에 5.458조원이 응찰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전일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매파적 발언이 나왔지만 지난주 고용 호조에 따른 금리 급등을 되돌림.
- 이날 발표된 7월 고용추세지수는 117.63으로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월 118.71 대비 하락해 향후 고용 증가세 둔화 시사.
- 오늘 밤 미국 7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발표 예정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$)

		8/8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06.40	0.6%	0.2%	9.9%
	달러지수	106.32	-0.2%	0.9%	11.2%
	달러/유로	1.019	0.1%	-0.7%	-10.4%
	위안/달러	6.76	-0.1%	-0.4%	6.2%
	엔/달러	134.88	-0.1%	2.5%	17.2%
	헤알/달러	5.16	-1.0%	-0.2%	-7.3%
상품	WTI 근월물($)	90.76	2.0%	-3.3%	20.7%
	금 현물($)	1,805.20	0.8%	1.9%	-1.3%
	구리 3개월물($)	7,947.00	1.0%	1.6%	-18.5%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전일 원달러 환율은 +8.10원 상승한 1,306.40원에 마감.
- 지난 주말 미국 고용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를 반영하며 1,305.00원에 갭 상승 출발. 그러나 장중 추가 이벤트나 수급 이슈가 제한되며 낮은 변동성 보였음.
-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보합세(+0.1%)로 마감한 가운데, 외국인은 +1,756억원 순매수하며 8일 연속 순매수세 지속.

전망 및 관전 포인트

-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급등을 되돌리며 약세 마감. 연은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이 나왔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음.
- 금일 원달러 환율은 다시 1,300원 하향 돌파를 테스트할 전망. 지난 달 1,32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는 최근 1,300원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. 연준 긴축 지속과 침체 우려가 남아있어 추세 반전으로 판단하긴 이름.
-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 유가 수준을 고려하면 올해 말 ~ 내년 1분기 이후 원화 약세 압력은 다소 진정될 전망.